

미수(眉叟) 허목(許穆)의 「춘추설(春秋說)」 연구

석 승 징*

국문초록

본 연구는 허목이 「춘추설」을 지으면서 참조한 자료들을 찾아서 정리하고, 그가 말하는 춘추대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허목은 그 자신이 50년 이상 읽어 온 옛글들을 축약하여 「경설」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그 글을 숙종에게 바친다. 여기에는 젊은 왕으로 하여금, 옛글에 들어있는 성인들의 가르침을 본받아 훌륭한 정치를 펼쳐 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

「경설」 중의 한 편인 「춘추설」에는 『춘추』에 대한 그의 생각이 오롯이 담겨 있다. 먼저 그는 공자가 옛 성인들의 가르침을 『춘추』를 통하여 후세에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그리고 『춘추』는 인의를 닦고 인도를 밝히는 큰 도리라고 설명한다. 또, 왕도가 사라지고, ‘시’가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시대에, 『춘추』가 있음으로써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어서, 춘추대의를 존군 의식, 인의의 가치관, 조선의 특수성을 반영한 대일통 사상 등의 세 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그리고 『춘추』의 가르침에 따라, 인의를 닦아 인도를 세우고, 천도를 이루며, 지도를 평안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허목이 「춘추설」을 지으면서 참조했던 다양한 옛글들을 찾아 그 맥락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가 어떤 상황 인식을 가지고 시대적 상황에 대응했는지에 대한 일단을 찾을 수 있었다. 특히 참조했던 옛글과 미세하게 달라지는 표현들을 통하여, 그가 춘추시대의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대일통 사상으로부터 조선의 개별성을 반영한 대일통 사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17세기 조선이 안고 있던 과제는, 흠심했던 전란, 끊임없이 이어지는 정치적 혼란 그리고 빈번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피폐해진 민생을 극복하는 일이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한 것은, 이와 같은 시대적·공간적 과제에 대한 당대의 책임 있는 지식인 허목의 대응이다. 그것은 왕권 강화를 통하여, 인과 의를 바탕으로 하는 안정적인 정치체제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 혼란한 시대상을 해결하려는 것이었다.

[주제어] 춘추설, 춘추대의, 존군의식, 인의의 가치관, 대일통 사상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다스림의 근본, 춘추대의 |
| II. 「춘추설」 저술의 의의 | V. 인도, 천도, 지도 그리고 『춘추』 |
| III. 천하의 본보기, 『춘추』 | VI. 맺음말 |

* 성균관대학교 유학동양한국철학과 박사과정 수료 / sjsuk00@gmail.com

I. 머리말

17세기 조선은 안팎으로 격변의 시기였다. 16세기 말에 벌어진 두 번의 왜란에 이어, 두 번의 호란을 더 겪었다. 정치적으로는 1623년에 인조반정이 있었고, 정신훈국을 비롯한 여러 차례의 환국이 이어지며 혼란이 가중되었다. 한편 중국에서는 1644년 명·청간의 왕조 교체가 벌어졌다. 게다가 소빙기의 절정이었던 이 시기에는 기상이변도 많았다.¹⁾ 당시에 대두된 소중화론, 북벌론, 이단 배격의 논리 그리고 춘추대의 사상 등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당대 지식인들의 고된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17세기라고 하는 시대적 한계와, 조선이라고 하는 공간적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이기 때문이다.

미수(眉叟) 허목(許穆, 1595~1682)은 이와 같이 어려웠던 시기에 현실 정치의 한 축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또 다른 한 축에 서있던 인물들과의 지난한 갈등 구조 속에서, 그는 그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자신이 감당해야 했던 시대적·공간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을 펼친다. 허목의 이러한 현실 대응이, 그의 학문적 소양을 바탕으로 발현되었음은 물론이다.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허목은 유학의 기본 경전인 육경을 매우 중요시 하였다. 육경 중에서도, 『춘추』를 예의의 대종, 곧 큰 규범이라고 이해한다. 『춘추』는 공자가 대의를 담아 놓은 경전이며, 그 춘추대의를 해석하여 현실에 활용함으로써 천하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허목의 학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갖는 『춘추』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미흡해 보인다. 허목의 문집인 『기언(記言)』에는 『춘추』와 관련된 언급들이 많이 들어 있다. 특히 그는 「춘추설(春秋說)」과 「춘추재이(春秋災異)」라는 글을 지었다. 「춘추설」은 매우 짧은 글이지만, 그의 학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연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목의 경학 사상을 다루는 연구에서 간략하게 언급되고 있으며,²⁾ 「춘추재이」를 다룬 몇 편의 논문이 보이는 정도이다.³⁾

『춘추』는, 동중서(董仲舒, B.C. 170 추정~B.C. 120 추정)가 그 해석을 통해 한(漢) 제국의 이념적 지배이론을 구축한 이래, 역사 속에서 현실 정치와 끊임없이 밀접한 관련을 맺어 왔다. 그 관련 속에서 끊임없이 거론 되는 것이 『춘추』에 담겨 있는 공자의 이상, 곧 ‘춘추대의’이다. 중국과 우리나라에는 ‘춘추대의’를 명분으로 진행된 다양한 역사적 사실들이 존재한다. 17세기 조선이라고 하는 시대적·공간적 한계 속에서 춘추대의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지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춘추설」로 한정하여, 허목이 「춘추설」을 지으면서 참조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허목이 ‘춘추대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허목은 「춘추설」을 지으면서, 자신의 주장

1) 17세기의 재해와 기근의 발생 현황을 보면, 1392년부터 1900년까지 발생한 전체 재해 81건 중 35건, 전체 기근 80건 중 36건으로 그 발생 빈도가 매우 높았다. 이준호·이상임, 「조선시대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 발생과 공옥(空獄) 사상의 교정적 의미 고찰」, 『교정담론』 11: 3, 아시아교정포럼, 2017, 269~296쪽 참조.

2) 조민환, 「허목의 경학사상」, 『한중철학』 1, 한중철학회, 1995; 정경주, 「미수 허목의 「경설」에 나타난 육경학의 학문 관점」, 『동양한문학연구』 14, 동양한문학회, 2001.

3) 이육, 「허목의 재이관」, 『종교학연구』 14, 서울대학교종교학연구회, 1995; 이동린, 「17세기 허목의 고학과 춘추재이론」,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을 펼치기 보다는 다양한 옛글에서 인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것은 그가 인용한 내용 하나 하나가 역사 속에서 발전해 온 ‘춘추학’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확보하고 있으며, 그 의미에 허목이 동의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허목이 인용하고 있는 전거들을 살피는 것만 가지고도 허목이 갖는 『춘추』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II. 「춘추설」 저술의 의의

「춘추설」은 「경설(經說)」 중의 한 편이다. 허목은 육경을 포함한 여러 옛글을 요약하여 「경설」을 지었다. 「경설」은 총 11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역설(易說)」 4편, 「춘추설」, 「시설(詩說)」, 「서설(書說)」, 「홍범설(洪範說)」, 「예설(禮說)」 2편, 「악설(樂說)」 5편, 「형설(刑說)」, 「정설(政說)」 2편, 「시령설(時令說)」, 「귀신설(鬼神說)」 등 총 20편이다. 허목은 숙종 3년(1677년)에 「경설」을 숙종에게 바쳤다.⁴⁾ 거기에는 83세의 늙은 신하가 즉위 3년차, 17세의 젊은 왕으로 하여금, 곁에 두고 참조하며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활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다. 「진경설서」를 통해 이런 그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르침은 말에 들어 있고, 도는 일에 들어 있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이 말과 일을 본받는 것이고 덕이란 이 말과 일을 터득하는 것인데, 옛날 수많은 성인이 남긴 서적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그러나 고인의 뜻을 대략 다 거론하였으니, 치도(治道)에 작은 도움이나마 있기를 바랍니다.⁵⁾

허목은 「경설」의 서문에서 자신이 참조한 책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진경설서」의 내용과는 조금 다르다. 두 기록을 차례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II-a) 『역』, 『춘추』, 『우서(虞書)』, 『하서(夏書)』, 『은서(殷書)』, 『주서(周書)』, 『하소정(夏小正)』, 『월령(月令)』, 『제어(齊語)』, 『노어(魯語)』를 모두 실어 놓았다.⁶⁾

합하여 20편이요, 1만 2096자입니다. 모두 (II-b) 『우서』, 『하서』, 『은서』, 『주서』 등 옛 경서와 『하소정』, 『월령』, 『제어』, 『노어』, 『좌전』, 『국어』에서 나온 것입니다.⁷⁾

4) 허목은 「경설」을, 단군 이래의 역사를 간주린 「동사(東事)」와 함께 숙종에게 올렸다. 『記言』, 「眉叟許先生年譜」, “先生八十三歲.” 조목 참조.

5) 許穆, 『記言』 卷31, 「進經說序」, “教寓於言, 道寓於事. 學, 數此者也, 德, 得此者也, 古群聖人之書盡矣, ……然古人之旨, 大略畢舉. 庶幾有補於治道之萬一云.”

6) 許穆, 『記言』 卷31, 「經說序」, “易, 春秋, 虞夏殷周之書, 夏小正, 月令, 齊魯之語, 具在此.”

7) 許穆, 『記言』 卷31, 「進經說序」, “共二十篇, 一萬二千九十六字. 皆出於虞夏殷周古經, 夏小正, 月令, 齊魯語, 左國氏.”

제시된 인용문의 (Ⅱ-a), (Ⅱ-b)를 비교해 보면 (Ⅱ-a)에 있는 『역』이 (Ⅱ-b)에는 없으며, (Ⅱ-a)에서는 『춘추』를 언급하고 있으나, (Ⅱ-b)에서는 ‘左國氏’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춘추』와 『서경』 속의 편명인 「우서」, 「하서」, 「은서」,⁸⁾ 「주서」, 그리고 『좌전』, 『국어』는 모두 역사서이며, 「하소정」은 『대대례기(大戴禮記)』의 편명으로 기후 관련 책이고, 「월령」은 『예기』의 편명으로 1년 12개월의 기후 변화와 정령(政令)을 기록한 책이다. 허목이 역사서와 「하소정」, 「월령」을 적시한 것은, ‘역사가 주는 교훈을 현실 정치에 반영하고, 의식과 행사를 시의에 맞게 집행할 것’을 바라는 그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허목은 『춘추』에 세상을 다스리고 정치를 바르게 하는 이치가 담겨있다고 본다. 또한 여러 가지 재앙과 이변이 생기는 일도, 하늘의 도와 사람의 일이 이치에 맞지 않아서 생긴다고 여긴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치를 바르게 하는 데에 『춘추』보다 좋은 것이 없으니, 『춘추』의 의리를 안 뒤
에야 임금을 존엄하게 여기고 친한 이를 사랑하는 이치를 터득하게 되고, 천도와 인사가 각각 순조롭
고 바르게 되며, 춥고 더운 절기가 차례에 맞고, 바람과 비가 제때에 맞으며, 요열(妖孽)이 생기지 않
는다.⁹⁾

20편 12,096자나 되는 전체 「경설」 중에서, 「춘추설」은 본문이 522자에 불과한 매우 짧은 글이다. 그러나 짧은 「춘추설」에는 『춘추』에 대한 허목의 생각이 오롯이 담겨있다. 『춘추』의 의리를 알아야만, ‘하늘의 도와 사람의 일’이 순조롭고 바르게 되어 재앙과 이변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목이 『춘추』를 이야기 하면서, 재앙과 이변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를 극복해 보려는 당대 지식인의 정서이며 한계였다고 이해된다. 17세기 조선이 안고 있던 과제는, 흑심했던 전란, 끊임없이 이어지는 정치적 혼란 그리고 빈번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피폐해진 민생을 극복하는 일이었다. 허목이 「춘추설」을 지은 것은 이와 같은 시대적·공간적 과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의 표현이다. 그것은 왕권 강화를 통하여, 인과 의를 바탕으로 하는 안정적인 정치체제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 혼란한 시대상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Ⅲ. 천하의 본보기, 『춘추』

허목은 「춘추설」의 첫머리에서 공자가 『춘추』를 지은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주나라의 덕이 쇠퇴하고 왕도가 무너지자 제후들이 제멋대로 방자하게 되어 천하가 대혼란에 빠졌

8) 「은서」는 「商書(상서)」의 별칭이다.

9) 許穆, 『記言』 卷66, 「自序 二」, “御世正治, 莫善於春秋. 知春秋之義, 然後嚴君仁親之理得, 天道人事, 各由順正, 寒暑序, 風雨時, 妖孽不作.”

다. 이에 공자가 『춘추』를 지었다. (Ⅲ-a)공자는 말하기를, “『춘추』는 천자의 일이다. 나를 알아주는 자도 오직 『춘추』 때문이고, 나를 탓하는 자도 오직 『춘추』 때문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공자는 천자의 지위를 얻지 못하였으나, 요순, 문무, 주공의 도를 전하였으니, 그 도의 큰 원리와 큰 법칙이 『춘추』에 실려 있다.¹⁰⁾

공자가 『춘추』를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 왔다.¹¹⁾ 공자가 『춘추』를 지었다고 하는 언급은 『맹자(孟子)』 「등문공 하(滕文公 下)」에 처음 등장한다.¹²⁾

풍속이 쇠퇴하고 도리가 미약해져서 부정한 학설과 포악한 행실이 일어나서, 신하로서 군주를 시해하는 자가 있으며,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시해하는 자가 있었다. (Ⅲ-b)공자께서 이를 두려워하여 『춘추』를 지으셨으니, 『춘추』는 천자의 일이다. 이 때문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알아주는 것도 오직 『춘추』 때문일 것이며, 나를 죄주는 것도 오직 『춘추』 때문일 것이다.”라고 하였다.¹³⁾

그런데, 위 두 인용문 중 (Ⅲ-a)와 (Ⅲ-b)의 내용을 보면 미묘한 차이가 있다. 「춘추설」 속의 (Ⅲ-a)는 ‘공자가 한 말’로 표현된 반면, 『맹자』에 보이는 (Ⅲ-b)는 ‘맹자가 한 말’로 표현되어 있다. 허목은 공자 스스로 ‘천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천자가 아닌 자신이 할 수 밖에 없었던 절실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한편, 『맹자』에는, 공자가 『춘추』를 지었다는 이야기에 앞서, 우왕이 홍수를 다스린 일과, 주공이 이적(夷狄)을 병합하고 맹수를 몰아낸 이야기가 나란히 제시되어 있다.

옛적에 우왕께서 홍수를 억제하시자 천하가 평안해졌고, 주공께서 이적을 병합하시고 맹수를 몰아 내시자 백성들이 편안해졌고, 공자께서 『춘추』를 완성하시자 난신적자들이 두려워하였다.¹⁴⁾

이렇게 함으로써, 맹자는 성인들이 나와서 천하를 다스린 사실과 공자가 『춘추』를 지어서 쇠퇴한 풍속과 미약해진 도리를 되돌리려했다는 사실을 등치시켰으며, 공자를 성인의 반열에, 역사서인 『춘추』를 경전의 위치에 올려놓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¹⁵⁾ 그리고 허목은 맹자의 이와 같은 인식을 모두 받아들인 것이다.

허목은 이어서, 『춘추』에 들어있는 수많은 기록을 통하여, 인의의 도를 잃어서, 나라를 망치고, 사직을 보

10) 許穆, 『記言』 卷31, 「春秋說」, “周德衰, 王道缺, 諸侯縱恣, 天下大亂. 於是孔子作春秋. 孔子曰, 春秋天子之事也, 知我者, 其唯春秋乎, 罪我者, 其唯春秋乎. 孔子不得位, 傳堯舜文武周公之道, 其大經大法, 載於春秋.”

11) 김동민, 『춘추논쟁』, 글항아리, 2014, 29~33쪽.

12) 권정안, 「춘추의 근본이념과 비판정신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10쪽.

13) 『孟子』, 「滕文公 下」 9, “世衰道微, 邪說暴行有作, 臣弑其君者有之, 子弑其父者有之. 孔子懼, 作春秋, 春秋天子之事也. 是故, 孔子曰, 知我者, 其惟春秋乎. 罪我者, 其惟春秋乎.”

14) 『孟子』, 「滕文公 下」 9, “昔者, 禹抑洪水而天下平, 周公兼夷狄驅猛獸而百姓寧, 孔子成春秋而亂臣賊子懼.”

15) 권정안은, “『춘추』를 지은 것이 공자”라고 하는 맹자의 언급은 “유학에서의 공자가 갖는 위치와 연계되어, 『춘추』를 불변적이고 무오류한 진리를 담은 경으로 인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라고 하였다. 권정안, 앞의 논문, 1990, 10쪽.

전하지 못하며, 아버지를 살해하고, 왕을 시해하는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춘추』는 수만 자의 글자로 이루어졌으며, 가리키는 뜻은 수천 가지이니, 만물이 흩어지고 모이는 이치가 여기에 실려 있다. 그 가운데 왕을 시해하고 나라를 망친 자, 제후로서 망명하여 사직을 보전하지 못한 자들은 모두 인의의 도를 잃은 자들이다. 왕 된 자가 인의의 도를 잃으면 아버지를 살해하는 자식이 생기고 왕을 시해하는 신하가 생기는 것이다.¹⁶⁾

허목은 「춘추설」을 지으면서 사마천(司馬遷, B.C. 145 추정~B.C. 86 추정)의 『사기』를 많이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사기』에는 허목이 언급한 내용들이 거의 그대로 혹은 보다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위 허목의 언급과 유사한 내용을 「태사공자서(太史公自序)」에서 찾을 수 있다.

『춘추』는 수만 자의 글자로 이루어졌으며, 가리키는 뜻은 수천 가지이니, 만물이 흩어지고 모이는 이치가 모두 『춘추』에 들어 있다. 『춘추』에는 왕을 시해한 것이 36회에 나라를 망친 것이 52회나 되며, 제후로서 망명하여 사직을 보전하지 못한 자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다. 그 까닭을 살펴보면 모두 그 근본을 잃었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신하가 군주를 시해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일은 결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인 결과다.”라고 하였다.¹⁷⁾

허목은 『춘추』를 사람의 도리를 밝히는, ‘천하의 본보기’로 이해하고 있다.

『춘추』는 인의를 닦고 인도를 밝히는 큰 도리이다. 덕 있는 이를 기리고 죄 있는 자를 물리쳐 천하의 본보기로 삼았으며, 천자를 폄하하고 제후를 물리치고 대부를 성토하여 왕이 행하는 일이 사방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왕이 왕답지 못하면 신랄하게 비판하였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면 주벌을 가했다.¹⁸⁾

허목의 이러한 언급 역시 「태사공자서」를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사마천은 동중서의 말을 인용하여 『춘추』가 천하의 본보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군주도 아버지도, 신하도 아들도, 모두 『춘추』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사마천에 따르면 춘추대의에 통달하지 못하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다.

내가 듣기에 동중서가 말하기를 “……242년에 이르는 여러 나라의 역사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져서 천하의 본보기로 삼았다. 천자를 폄하하고 제후를 물리치고 대부를 성토하여 왕이 행하는 일이 사방에

16) 許穆, 『記言』 卷31, 「春秋說」, “春秋文成數萬, 其指數千, 萬物之散聚載焉. 其中弑君亡國, 諸侯奔走, 不得保社稷者, 皆失仁義之道者也. 君人者失仁義之道, 而子弑其父者有之, 臣弑其君者有之.”

17) 『史記』, 「太史公自序」, “春秋文成數萬, 其指數千, 萬物之散聚, 皆在春秋. 春秋之中, 弑君三十六, 亡國五十二, 諸侯奔走, 不得保其社稷者, 不可勝數. 察其所以, 皆失其本已. ……故曰, 臣弑君, 子弑父, 非一旦一夕之故也, 其漸久矣.”

18) 許穆, 『記言』 卷31, 「春秋說」, “春秋者, 修仁義明人道之大倫, 褒有德黜有罪, 儀表天下, 貶天子, 退諸侯, 討大夫, 王事達矣. 故君不君則犯, 臣不臣, 則誅.”

도달하도록 했을 따름이다.”라고 하였다.¹⁹⁾

군주나 아버지가 되어서 『춘추』의 대의에 통달하지 못한 자는 반드시 최고의 오명을 쓰게 된다. 신하나 아들이 되어서 『춘추』의 대의에 통달하지 못한 자는 반드시 찬탈이나 시해의 필주(筆誅)나 사죄(死罪)의 악명에 빠지게 된다. 사실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여기고 행하지만, 대의를 알지 못하고 행하기 때문에 포폄을 당하더라도 감히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다.²⁰⁾

이어서, 허목은 『춘추』가 경전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맹자가 말하기를 “왕자(王者)의 자취가 사라지자 시가 없어졌고, 시가 없어진 연후에 『춘추』가 지어졌다. 『춘추』가 지어지자 난신적자가 두려워하였다.”라고 한 것이다.²¹⁾

이러한 허목의 언급은, 『맹자』 「이루 하(離婁 下)」 21장과 「등문공 하」 9장을 연결하여 말한 것이다. 「춘추설」의 내용과 『맹자』 경구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동일한 문맥임을 확인할 수 있다.

맹자가 말하였다. “왕자의 자취가 사라지자 시가 없어졌고, 시가 없어진 연후에 『춘추』가 지어졌다.”²²⁾

공자가 『춘추』를 완성하자 난신적자가 두려워하였다.²³⁾

왕도가 무너지자, 시가 없어졌다는 것인데, 시가 없어졌다는 표현은 『시경』이 가졌던 위상과 역할을 잃어버렸다는 말이다. 「이루 하」 21장의 내용에 대하여, 주희(朱熹, 1130~1200)는 “왕자의 자취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평왕이 동쪽으로 천도함에 정교(政敎)와 호령(號令)이 천하에 미치지 못함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서리(黍離)」 편이 국풍(國風)으로 강등되어 아(雅)가 없어짐을 말한다.”²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시경』 전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춘추』가 지어짐으로써 『시경』이 담당하던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주석하고 있는 것이다. ‘『시경』이 담당하던 역할’은 『논어(論語)』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공자는 시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그것을 바탕으로 어버이와 임금을 섬길 수 있게 되며, 온갖 지식을 갖출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19) 『史記』, 「太史公自序」, “余聞董生曰,……是非二百四十二年之中, 以爲天下儀表, 貶天子, 退諸侯, 討大夫, 以達王事而已矣.”

20) 『史記』, 「太史公自序」, “爲人君父而不通於春秋之義者, 必蒙首惡之名. 爲人臣子而不通於春秋之義者, 必陷篡弑之誅, 死罪之名. 其實皆以爲善, 爲之不知其義, 被之空言而不敢辭.”

21) 許穆, 『記言』 卷31, 「春秋說」, “孟子曰, 王者之跡息而詩亡, 詩亡然後春秋作, 春秋作而亂臣賊子懼.”

22) 『孟子』, 「離婁 下」 21, “孟子曰, 王者之跡, 熄而詩亡, 詩亡然後, 春秋作.”

23) 『孟子』, 「滕文公 下」 9, “孔子成春秋而亂臣賊子懼.”

24) 『孟子集註』, 「離婁 下」 21, “王者之跡熄, 謂平王東遷, 而政敎號令, 不及於天下也, 詩亡, 謂黍離降爲國風而雅亡也.”

시는 뜻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잘잘못을 살필 수 있으며, 무리를 지을 수 있으며, 원망할 수 있으며, 가까이는 아버이를 섬길 수 있게 하며, 멀리는 임금을 섬길 수 있게 하고, 새와 짐승, 풀과 나무의 이름을 많이 알게 한다.²⁵⁾

아버이와 임금을 섬길 수 있다는 말은, 부자와 군신간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것은 실천덕목으로서의 오륜을 압축하여 표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시경』의 위상과 역할은 인간이 갖추어야 할 실천덕목을 가르쳐 주는 경전이라는 말이다. 인간 세상의 실천덕목으로서의 시는 당대에 정치와 외교를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이였다.

시 삼백 편을 외우더라도 정사를 맡겨줌에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사방에 사신으로 가서 혼자서 체결하지 못한다면 비록 많이 외운들 어디에 쓰겠는가?²⁶⁾

맹자는 이와 같은 시의 위상과 역할이 없어지게 되자,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공자가 『춘추』를 지었다고 말하였으며, 허목은 이와 같은 맹자의 인식을 받아들여, 『춘추』가 경전으로서, ‘천하의 본보기’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IV. 다스림의 근본, 춘추대의

허목은 춘추대의를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설명한다. 존군(尊君) 의식, 인의(仁義)의 가치관, 그리고 대일통(大一統) 사상이다.

그 대의는 군주를 높이고 신하를 낮추며, 인과 의를 귀하게 여기고, 속임수와 폭력을 천하게 여기며, (IV-a)중국을 존엄하게 여기고 오랑캐를 물리치는 것[嚴中國攘夷狄]이다.²⁷⁾

허목이 말하는 춘추대이는 정이(程頤, 1033~1107)의 「춘추전 서(春秋傳 序)」를 주석한 『근사록집해(近思錄集解)』의 내용과 유사하다.

춘추대의 중에 예컨대 군주를 높이고 신하를 낮춘 것과 인과 의를 귀하게 여기고, 속임수와 폭력을 천하게 여기며, (IV-b)중국을 안으로 여기고 오랑캐를 밖으로 여긴 것[內中國而外夷狄]과 같은 것은……²⁸⁾

25) 『論語』, 「陽貨」 9, “詩, 可以興, 可以觀, 可以羣, 可以怨, 邇之事父, 遠之事君, 多識於鳥獸草木之名.”

26) 『論語』, 「子路」 5, “誦詩三百, 授之以政, 不達, 使於四方, 不能專對, 雖多, 亦奚以爲.”

27) 許穆, 『記言』 卷31, 「春秋說」, “其大義, 尊君卑臣, 貴仁義賤詐力, 嚴中國攘夷狄.”

28) 『近思錄集解』 卷3, 「致知」 61, “春秋大義, 如尊君而卑臣, 貴仁義而賤詐力, 內中國而外夷狄之類, ……”

허목이 춘추대의를 설명하면서 첫 번째로 내세운 것은 군주를 높이고 신하를 낮추는 ‘존군 의식’이다. 이 내용은 「춘추설」의 언급과 『근사록집해』의 주석이 일치한다. 실제로 그는 예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한결같이 “왕실의 예와 일반 사서인의 예는 확연히 다르다.”는 주장을 펼친다.²⁹⁾ 왕권이 약화되면, 나라가 쇠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시대 인식이다.

군주가 존엄하지 않으면 나라의 위신이 서지 못한다. 그러므로 군주의 권위가 존엄하지 않은 것은 쇠퇴한 나라의 정사이다.³⁰⁾

그것은 춘추시대 공자가 갖는 기본 인식과 같다. 『공자가어』에 노나라의 권력자인 맹손(孟孫), 속손(叔孫), 계손(季孫) 등 세 집안에서 정해진 제도보다 크게 음성을 쌓은 것을 공자가 무너뜨린 후에, “군주를 높이고 신하를 낮춘 결과, 정치와 교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하는 모습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공실(公室)을 높이고 사가(私家) 세력을 약화시켜 군주를 높이고 신하를 낮추니 정치와 교화가 크게 행해졌다.³¹⁾

허목이 춘추대의를 설명하면서 두 번째로 제시한 것은 인과 의를 귀하게 여기고 속임수와 폭력을 천하게 여긴다고 하는 가치관이다. 역시 「춘추설」의 언급과 『근사록집해』의 주석이 일치한다. 이것은 공자가 『춘추』를 지음에 있어, 선한 행위는 부각시켜 칭찬하고, 악한 행위는 폭로하여 비난하는 포편을 가했다고 보는 인식이다.³²⁾ 이와 관련한 내용은 앞의 Ⅲ장에서 살펴본 바 있다.

허목이 춘추대의를 설명하면서 세 번째로 내세운 것은 중국을 존엄하게 여기고 오랑캐를 물리치는 것이다. 이 내용이 「춘추설」의 언급과 『근사록집해』의 주석이 다른 부분이다. 『춘추』 속에서 중국을 존엄하게 여긴다는 생각은 ‘중국은 하나’라고 하는 이른바 대일통 사상으로 나타난다. 대일통 사상은 『춘추』의 첫 번째 기사, 즉 노나라 은공이 즉위한 기록에서부터 바로 보인다.

원년, 봄, 주나라 왕의 정월이다.³³⁾

이 짧은 문장에 대하여 『공양전(公羊傳)』은 노나라 은공 원년을 이야기하면서 주나라 왕의 정월을 이야기하는 것은, 천하에 왕은 주나라 왕 한 사람뿐이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천하를 하나로 통일하는 것(大一統)을 중요시하는 의미를 부여하였던 것이다.

29) 이영춘, 「기해예송과 미수 허목의 예론」, 『허미수의 학·예·사상 논고』, 미수연구회, 1998, 124쪽.

30) 許穆, 『記言』, 「眉叟許先生年譜」 卷2, “君不嚴則國不重, 故君道不嚴, 衰國之治也.”

31) 『孔子家語』, 「相魯」, “強公室, 弱私家, 尊君卑臣, 政化大行.”

32) 김동민, 앞의 책, 2014, 112쪽.

33) 『春秋』, 「隱公 元年」, “元年, 春, 王正月.”

원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군주가 즉위한 첫 해이다. 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한 해의 시작이다. 왕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문왕을 말한다. 무엇 때문에 먼저 왕을 말하고 뒤에 정월을 말했는가? 주나라 왕이 제정한 정월이기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 왕 정월을 말했는가? 천하를 하나로 통일하는 것을 중시한 것이다.³⁴⁾

대일통 사상은 천하를 하나의 통치 질서로 결합해야 한다는 사상이다. 통치 질서의 결합은 존왕 의식을 바탕으로 한다.³⁵⁾ 존왕 의식은 천하의 안정과 통일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이다.³⁶⁾ 여기서 말하는 왕은 주나라의 왕, 곧 천자이다. 그런데, 춘추시대로 접어들면서 천자 중심의 질서는 흔들리게 되었고, 패자들의 역할이 증대된다.³⁷⁾ 그리고, 대일통의 의미도 확대된다.

앞에서 제시된 인용문, 「춘추설」의 (IV-a)「嚴中國攘夷狄」는, 『근사록집해』의 (IV-b)「內中國而外夷狄」와 다르다. 『춘추』는 노나라를 아(我)로 지칭하고 있으나, 『공양전』에서는 아(我)외에 내(內)와 오(吾)를, 노나라 이외의 중국 내의 나라들에 대해서는 외(外)를 써서 표현하고 있다. 그것이, 패자들의 역할이 중국 내의 나라들을 위협하는 오랑캐夷狄들을 몰아내는 양이(攘夷)로 집중되면서, 중국 내의 나라들에 대해서는 내(內), 오랑캐들에 대해서는 외(外)로 여기는 형태로 확대되었다.³⁸⁾ (IV-b)「內中國而外夷狄」는 이와 같은 흐름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허목은 「춘추설」에서 (IV-a)「嚴中國攘夷狄」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허목이 이해하는 대일통이 『춘추』의 확대된 대일통보다 더욱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존주(尊周)’가 아닌 ‘존왕(尊王)’이며, 중국을 존엄하게 여기되 자신이 감당하여야 할 시대적·공간적 한계 속의 ‘존왕’이다.³⁹⁾ 그 ‘존왕’은 춘추학에서 말하는 ‘존왕양이(尊王攘夷)’의 ‘존왕’과는 또 다르다. 이렇게 확대된 대일통 사상 속에서 ‘중국을 안으로 여기고, 오랑캐를 밖으로 여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중국이 이루어 낸 문화적 성취를 인정하기 때문에 ‘중국을 존엄하게 여긴다.’라는 표현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중국을 존엄하게 여긴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다. 또 명나라의 멸망이후 조선에서 대두된 소중화론과 연계하여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오랑캐와 다르다.’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오랑캐를 물리친다.’라는 표현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은, 그의 다른 글, 「자서 2」에서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대일통’을 직접 언급하면서, ‘중국을 존엄하게 여기고, 오랑캐를 물리친다.’라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춘추』의 맨 앞에 대일통을 말하여, 인의의 도리를 밝히고, 임금을 높이고 신하를 낮추고, 왕도를

34) 『公羊傳』「隱公 元年」: 元年者何 君之始年也 春者何 歲之始也 王者孰謂 謂文王也 曷爲先言王而後言正月 王正月也 何言乎王正月 大一統也.

35) 김동민, 앞의 책, 2014, 84쪽.

36) 김동민, 위의 책, 2014, 84쪽.

37) 존왕 의식의 변천 양상은 김동민, 「『춘추』에 보이는 존왕 의식의 변천 양상」, 『유교사상문화연구』 75, 한국유교학회, 2019. 참조.

38) 김동민, 앞의 책, 2014, 97~100쪽.

39) 박신환은 “송시열은 『춘추』의 대일통을 존주 정신으로 보고 이에 따라 북벌을 대의로 삼았으나, 허목은 『춘추』의 대일통을 왕통(王統)의 존엄성 확보에 두고 이에 따른 제반 조치를 강구하는 기준으로 삼았다.”라고 설명하였다. 박신환, 『조선조 유학자의 지향과 갈등』, 철학과현실사, 2005, 258쪽.

행하고, 인륜을 바로잡고, 선한 자는 포상하고 사악한 자는 규계하여 난신적자로 하여금 그 간사한 마음을 금하여 펴지 못하게 한 것이 『춘추』의 가르침이다.⁴⁰⁾

위 인용문이 들어있는 「자서 2」는 허목이 86세였던 1680년에 쓴 글이고, 「춘추설」은 1677년에 「경설」 속에 포함되어 숙종에게 바친 글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허목의 대일통’이 변화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춘추』의 포폄은 당사자의 의도나 의지를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표현되어,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발생한 것처럼 기록하기도 하며, 당사자의 사전 인지 여부까지도 따져서 포폄이 가해지기도 한다.⁴¹⁾ 또, 사실 그대로의 기록이 아닌 경우도 있다. 이것은 드러난 사실이 진실을 은폐하는 것일 때, 사실 자체보다 진실을 드러냄을 더욱 중시한다고 보는 것이다.⁴²⁾ 이러한 ‘춘추필법’은 공자가 『춘추』를 기록하면서 그 속에 자신의 생각이나 의도를 미언대의(微言大義)의 형태로 담아두었다는 전제하에서 성립한다. 그런데 그 미언을 읽어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하여 미언이 담고 있는 대의에 대하여 관점을 달리한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춘추3전의 해석이다.⁴³⁾ 허목은, 이렇듯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춘추』의 포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법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억누르기도 하고 선양하기도 하며,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며, 진출시키기도 하고 물리치기도 하며, 숨기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하였으니, 최고의 지혜를 지닌 자가 아니고서는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⁴⁴⁾

허목의 이러한 언급도, 「춘추전 서」와 『근사록집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억누르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며,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며, 진출시키기도 하고 물리치기도 하며, 숨기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하였다.⁴⁵⁾

보기가 어려운 것은 은미한 말씀과 심오한 뜻으로, 각각 때에 따라 조처함을 알맞게 함에 있으니, 시중(時中)에 깊이 밝은 자가 아니면 쉽게 엿보지 못한다.⁴⁶⁾

허목에게 있어서 『춘추』의 포폄은 틀림이 없으며, 그만큼 『춘추』의 가르침은 준엄한 것이다.

40) 許穆, 『記言』 卷66, 「自序 二」, “春秋之書, 首言大一統, 以明仁義之道, 尊君卑臣, 行王道, 正人紀, 褒善糾邪, 使亂臣賊子, 禁其奸而不得肆, 春秋之教也.”

41) 김동민, 앞의 책, 2014, 112~113쪽.

42) 권정안, 앞의 논문, 1990, 100쪽.

43) 김동민, 앞의 책, 2014, 62~72쪽.

44) 許穆, 『記言』 卷31, 「春秋說」, “其權度, 或抑或揚, 或與或奪, 或進或退, 或微或顯, 非上智, 不能知其言.”

45) 『二程文集』 卷9, 「春秋傳 序」, “或抑或縱, 或與或奪, 或進或退, 或微或顯.”

46) 『近思錄集解』 卷3, 「致知」 61, “其難見者, 蓋在於微辭奧義, 各適乎時措之宜者, 非深明乎時中者, 未易窺也.”

삼왕(三王)에게 상고해도 틀리지 않으며, 천지에 세워도 어긋나지 않으며, 귀신에게 질정해도 의심이 없으며, 백세 뒤에 성인이 다시 나오더라도 의혹하지 않을 것이다.⁴⁷⁾

허목의 이러한 언급 역시 「춘추전 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정이는 『중용』에서 군자의 도를 설명하는 문구를 가져와서, 공자가 『춘추』를 지은 일에 의미를 부여하였던 것이다.

이에 『춘추』를 지어서 바꿀 수 없는 백왕(百王)의 대법(大法)을 만드셨으니, 이른바 “삼왕에게 상고해도 틀리지 않으며, 천지에 세워도 어긋나지 않으며, 귀신에게 질정해도 의심이 없으며, 백세 뒤에 성인이 다시 나오더라도 의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다.⁴⁸⁾

허목은 『춘추』의 포편을 활용하여 천하를 다스릴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예의의 대종(大宗)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다른 글에서 ‘『역』의 변화, 『예』의 의칙, 『악』의 조화, 『시』의 풍자, 『서』의 정사, 『춘추』의 의리’⁴⁹⁾라고 하여 여섯 경전 각각에 의미를 부여해서 말한 바 있는데, 그 중에서도 『춘추』는 공자가 대의를 담아 놓은 경전이며, 그 춘추대의를 해석하여 현실에 활용하여 천하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예의의 대종, 곧 큰 규범이라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춘추』는 성인이 천하를 다스리는 도구이며 예의의 대종이다.”라고 한 것이다.⁵⁰⁾

이 언급은 사마천의 견해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사마천은 『춘추』를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책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또, 『춘추』의 예의로써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으므로, 『춘추』를 예의의 대종이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춘추』는 도의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아서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려놓는 데는 『춘추』보다 더 좋은 책이 없다.⁵¹⁾

따라서 『춘추』는 예의의 대종이다. 대체로 예의란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그것을 막는 것이고, 법률이란 사건이 발생한 후에 거기에 시행하는 것이다.⁵²⁾

47) 許穆, 『記言』 卷31, 「春秋說」, “考諸三王而不謬, 建諸天地而不悖, 質諸鬼神而無疑, 百世以俟聖人而不惑.”

48) 『二程文集』 卷9, 「春秋傳序」, “於是, 作春秋, 爲百王不易之大法, 所謂考諸三王而不謬, 建諸天地而不悖, 質諸鬼神而無疑, 百世以俟聖人而不惑者也.”

49) 許穆, 『記言』 卷66, 「自序二」, “易之化, 禮之則, 樂之和, 詩之風, 書之政, 春秋之義.”

50) 許穆, 『記言』 卷31, 「春秋說」, “故曰, 春秋者, 聖人之用, 禮義之大宗也.”

51) 『史記』, 「太史公自序」, “春秋以道義, 撥亂世反之正, 莫近於春秋.”

52) 『史記』, 「太史公自序」, “故春秋者, 禮義之大宗也. 夫禮禁未然之前, 法施已然之後.”

춘추필법의 엄정함에 대하여, 허목은 공자의 제자들조차 『춘추』에 한마디 말도 더하거나 뺄 수 없었다고 설명한다. 더불어 공자가 안연에게 했던 말을 인용하여, 우·하·은·주(虞·夏·殷·周)의 4대가 예와 악으로 다스려졌다고 말함으로써 『춘추』에 보다 강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공자의 제자 자유와 자하의 무리는 『춘추』에 한마디 말도 도울 수 없었거니와 공자가 안연에게 “하나나라의 책력을 쓰고, 은나라의 수레를 타고, 주나라의 면류관을 쓰고, 음악은 소무로 하며, 정나라 음악을 금지하고 말재주만 있는 사람을 멀리할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니, 사대(四代)가 예악으로 다스린 것이 대략 이와 같다.⁵³⁾

자유와 자하를 언급한 내용은 『사기』 「공자세가」에 보이고, 공자가 안연에게 한 말은 『논어』 「위령공」 10장에 있는 내용이다.

『춘추』를 지으며 필삭할 적에 자하의 무리는 한마디 말도 도울 수 없었다.⁵⁴⁾

안연이 나라 다스리는 법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나라의 책력을 쓰고, 은나라의 수레를 타고, 주나라의 면류관을 쓰고, 음악은 소무로 하며, 정나라 음악을 금지하고 말재주만 있는 사람을 멀리해야 하니, 정나라 음악은 음탕하고 말재주 있는 사람은 위태롭다.”⁵⁵⁾

『춘추』에는 ‘춘추대’라고 말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한다.⁵⁶⁾ 그 중에서 허목은 다만 세 가지의 대의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존군 의식을 바탕으로 왕권의 강화를 꾀하고, 이어서 인의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여 안정적인 정치체제를 도모하며, 중국에는 조선의 현실을 반영한 대일통을 이루어, 혼란한 시대상을 극복하고자 했던 그의 시대적·공간적 과제에 대한 대응 의지가 담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V. 인도, 천도, 지도 그리고 『춘추』

허목은 왕도를 밝히고 사람의 기강을 변별하는 등의 인간 세상의 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가르침이 『춘추』

53) 許穆, 『記言』 卷31, 「春秋說」, “游夏之徒, 不能贊一辭. 而孔子謂顏淵曰, 行夏之時, 乘殷之輅, 服周之冕, 樂則韶舞, 放鄭聲, 遠佞人, 四代禮樂之治, 大略如此.”

54) 『史記』, 「孔子世家」, “至於爲春秋, 筆則筆削則削, 子夏之徒不能贊一辭.”

55) 『論語』, 「衛靈公」 10, “顏淵問爲邦, 子曰, 行夏之時, 乘殷之輅, 服周之冕, 樂則韶舞, 放鄭聲, 遠佞人, 鄭聲淫, 佞人殆.”

56) 김동민은 『공양전』에서의 춘추대의를 발란반정(撥亂反正)과 대일통, 존왕의 이상과 권도의 용인, 내외 차별의 역사관, 동기주의적 가치 판단, 친친의 가족주의 지향 등으로 정리하였다. 김동민, 앞의 책, 2014, 72~127쪽 참조; 안춘분은 공자의 춘추대의를 중화사상, 정명사상, 비판사상 등으로 정리하였다. 안춘분, 「공자의 『춘추』 대의사상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60~70쪽 참조.

에 들어있다고 말하고 있다.

『춘추』의 천하를 다스리는 방법은 왕도를 밝히고 사람의 기강을 변별하며, 선은 장려하고 악은 미워하게 하며, 망한 나라의 이름을 보존하게 하며, 끊어진 세대의 후손을 찾아 잇게 하며, 모자란 곳은 메워주고 못쓰게 된 것은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니, 『춘추』는 다스림에 장점이 있으며, 이것이 『춘추』의 가르침이다.⁵⁷⁾

이러한 언급 역시 사마천이 「태사공자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축약한 것으로 보인다.

『춘추』는 위로는 삼왕의 도를 밝히고, 아래로는 인간사의 기강을 변별하고, 의심스러운 바를 구별하고, 시비를 밝히며,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결정하게 하고, 선은 장려하고 악은 미워하게 하며, 어진 사람은 존중하고 못난 자는 물리치게 하고, 망한 나라의 이름을 보존하게 하며, 끊어진 세대의 후손을 찾아 잇게 하며, 모자란 곳은 메워주고 못쓰게 된 것은 다시 일으켜 세우는 바, 이것이야말로 큰 왕도이다.⁵⁸⁾

『춘추』의 가르침을 가지고 해야 할 급선무는 사람들이 인의를 닦는 일이다. 허목은 인의를 닦지 않으면 인도를 세울 수 없으며, 천도를 이룰 수 없으며, 지도가 평안해 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인의를 닦지 않으면 인도가 서지 않고 천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지도가 평안해지지 않게 된다.⁵⁹⁾

이러한 언급은 정이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을 인도하고 가르쳐서, 생업이 이루어지고 윤리가 밝아진 것을, 허목은 인의를 닦는 것으로 바꾸어 표현하여, ‘인의를 닦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정이는 「춘추전 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하늘이 사람들을 낼 때에 반드시 출중한 재주가 있는 분이 나와서 군장이 되게 하여, 그들을 다스려 쟁탈이 종식되고, 그들을 인도하여 생업이 이루어지고, 그들을 가르쳐서 윤리가 밝아졌으니, 그런 뒤에 인도가 서고 천도가 이루어지고 지도가 평안해졌다.⁶⁰⁾

허목은 춘추필법에 덧붙여 재이의 발생이 모두 사람에게서 연유한 것이라고 본다. 재이는 천도가 이루어

57) 許穆, 『記言』 卷31, 「春秋說」, “其治之之術, 明王道, 辨人紀, 善善惡惡, 存亡國, 繼絕世, 補弊起廢, 長於治春秋之教也.”

58) 『史記』, 「太史公自序」, “夫春秋, 上明三王之道, 下辨人事之紀, 別嫌疑, 明是非, 定猶豫, 善善惡惡, 賢賢賤不肖, 存亡國, 繼絕世, 補敝起廢, 王道之大者也.”

59) 許穆, 『記言』 卷31, 「春秋說」, “仁義之不修, 人道不立, 天道不成, 地道不平.”

60) 『二程文集』 卷9, 「春秋傳 序」, “天之生民, 必有出類之才起而君長之, 治之而爭奪息, 導之而生養遂, 教之而倫理明, 然後人道立, 天道成, 地道平.”

지지 않고, 지도가 평안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므로 재이가 발생하는 것은 사람들이 인의를 닦지 않았기 때문이다. 『춘추』에 공자가 재이 현상을 기록한 것은 이와 같은 이치를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에 추위와 더위가 무질서하게 나타나고, 일식과 월식이 생기며, 가물거나 홍수가 일어나고, 혜성이 나타나거나 별뿔별이 떨어지며, 지진이 일어나고 산이 무너지니, 이것은 모두 사람의 행위에 감응을 보인 것이다. 성인이 이것을 모두 기록하였으니, 백대에 끼칠 교훈으로 군자가 이 점을 두려워한 것이다.⁶¹⁾

이러한 논리는 동중서의 천인감응설(天人感應說)을 떠올리게 한다.⁶²⁾ 허목의 『기언』에는 재이현상에 대한 언급이 유달리 많다. 그가 『춘추』에 기록되어 있는 재이 현상만을 따로 모아 쓴 「춘추재이」에는 『춘추』에 기록된 30건의 재이 관련 기사와, 『춘추』에는 없으나 『좌씨전(左氏傳)』에는 보이는 3건의 기사까지, 총 33건의 재이 관련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⁶³⁾ 재이의 발생이 모두 사람 때문이라는 인식은 17세기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을 빼고 이해할 수 없다. 당시는 전 세계적인 소빙기로, 기상이변이 많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벌어지는 현실을 마주한 당대 지식인의 고뇌라고 보는 것이다.

허목은 「춘추설」의 말미에, 『춘추』의 기록을 은공으로부터 시작한 것은 더 이상 왕도가 실행될 수 없음을 슬퍼하였기 때문이며, 상서로운 짐승인 기린이 나타난 것에서 『춘추』를 끝냈다고 하여 그 시점의 의미가 깊다고 말하고 있다.

『춘추』는 “은공 원년 봄 왕 정월에 공과 주나라 의보가 멸에서 맹약을 맺다.”라는 기록으로부터 “에공 14년 봄에 서쪽으로 사냥을 나가 기린을 잡다.”라는 기록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 242년간의 기록이다. 아, 『춘추』의 저술이 은공에서 시작한 것은 천하에 다시는 왕자가 없을 것을 슬퍼한 것이고, 기린을 잡은 기록에서 절필한 것은 천도가 어김이 없음을 보여 준 것이다. (V-a)성인의 저술이 완성되자 기린이 나타났으니, 시점의 의미가 깊다.⁶⁴⁾

역시, 허목이 참조했을 것으로 보이는 기록은 사마천의 『사기』에 보인다. 사마천은 「태사공자서」에 공자가 주나라의 왕도가 쇠퇴하였다고 판단하고서 『춘추』를 지었다는 사실을, 「십이제후연표」에 『춘추』의 기록이 은공 시대로부터 애공 시대까지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유림열전」에는 공자가 기린을 보고 한탄하였다

61) 許穆, 『記言』 卷31, 「春秋說」, “於是寒暑失其序, 日月薄食, 旱乾水溢, 星孛星隕, 地震山崩, 此皆人爲感之也. 聖人悉書之, 百代之教也, 君子懼焉.”

62) 동중서의 천인감응설에 대해서는 김동민, 앞의 책, 2014, 139~167쪽 참조.

63) 이동린, 앞의 논문, 2000, 48~51쪽.

64) 許穆, 『記言』 卷31, 「春秋說」, “春秋自隱公元年春王正月公及邾儀父盟于蔑, 至哀公十有四年春, 西狩獲麟, 其間二百四十二年. 嗚呼, 春秋作於隱公, 傷天下之無復有王也, 絕筆於獲麟, 觀於天道之不違也. 聖人制作成文而麟至, 其際深矣.”

는 내용을 기록하였던 것이다.

주나라의 왕도는 쇠퇴하였고, 공자는 노나라의 사구가 되었다. 제후들은 공자를 시기하고 대부들은 공자를 방해했다. 공자는 자신의 말과 주장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242년에 이르는 여러 나라의 역사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져서 천하의 본보기로 삼았다.⁶⁵⁾

위로는 노나라 은공 시대부터 기록하였고, 아래로는 애공 시대에 기린을 잡은 시기까지 이르렀다. 그 문장을 간략하게 썼고, 번잡하고 중복되는 것을 빼버리고서 의리와 법도를 제정하니, 왕도가 갖추어지고 인사가 다 구비되었다.⁶⁶⁾

(V-b)서쪽에서 사냥을 하다가 기린을 잡자, 공자가 “나의 도가 다 되었구나.”라고 말했다. 따라서 옛 역사 기록에 근거하여 『춘추』를 지어 왕법에 해당시켰다.⁶⁷⁾

사마천의 언급들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주나라의 왕도는 쇠퇴하였으며, 자신의 말과 주장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 상황에서, 상서로운 짐승이라고 알려진 기린이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나타난 것을 보고 한탄하여, 주나라의 왕도가 쇠퇴한 시기로부터 기린이 나타난 시기까지의 역사를 『춘추』에 기록한 것이다. “천하에 다시는 왕자가 없을 것을 슬퍼하여 『춘추』를 지었다.”라는 허목의 인식과, 사마천의 인식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위 「춘추설」을 인용한 (V-a)와 「유림열전」을 인용한 (V-b)의 상황 인식은 사뭇 내용이 다르다. 허목은 “성인의 저작이 완성되자 기린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으나, 사마천은 “기린을 잡은 것을 보고 느낀 바 있어 『춘추』를 지었다.”라고 하였다. 허목은 기린을 보고 하늘의 도가 어김이 없이 순환할 것이라는 희망을 표현한 반면, 사마천은 나의 도가 다했다는 절망을 표현하였다. 공자의 “도가 다하였다.”라는 말에는 동의하고 싶지 않다는 허목의 의지가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VI. 맺음말

허목은 그 자신이 50년 이상 읽어 온 옛글들을 축약하여 「경설」을 지었다. 그리고 그 글을 숙종에게 바친다. 여기에는 젊은 왕으로 하여금, 옛글에 들어있는 성인들의 가르침을 본받아 훌륭한 정치를 펼쳐 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

「경설」 중 한 편인 「춘추설」에는 『춘추』에 대한 그의 생각이 오롯이 담겨 있다. 먼저 그는 공자가 옛 성

65) 『史記』, 「太史公自序」, “周道衰廢, 孔子爲魯司寇, 諸侯害之, 大夫壅之. 孔子知言之不用, 道之不行也, 是非二百四十二年之中, 以爲天下儀表.”

66) 『史記』, 「十二諸侯年表」, “上記隱, 下至哀之獲麟. 約其辭文, 去其煩重, 以制義法, 王道備, 人事決.”

67) 『史記』, 「儒林列傳」, “西狩獲麟曰, 吾道窮矣. 故因史記作春秋, 以當王法.”

인들의 가르침을 『춘추』를 통하여 후세에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그리고 『춘추』는 인의를 닦고 인도를 밝히는 큰 도리라고 설명한다. 또, 왕도가 사라지고, ‘시’가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시대에, 『춘추』가 있음으로써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어서, 춘추대의를 존군 의식, 인의의 가치관, 조선의 특수성을 반영한 대일통 사상 등의 세 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그리고 『춘추』의 가르침에 따라, 인의를 닦아 인도를 세우고, 천도를 이루며, 지도를 평안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허목이 「춘추설」을 지으면서 참조했던 다양한 옛글들을 찾아 그 맥락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가 어떤 상황 인식을 가지고 시대적 상황에 대응했는지에 대한 일단을 찾을 수 있었다. 특히 참조했던 옛글과 미세하게 달라지는 표현들을 통하여, 그가 춘추시대의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대일통 사상으로부터 조선의 개별성을 반영한 대일통 사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17세기 조선이 안고 있던 과제는, 호심했던 전란, 끊임없이 이어지는 정치적 혼란 그리고 빈번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피폐해진 민생을 극복하는 일이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한 것은, 이와 같은 시대적·공간적 과제에 대한 당대의 책임 있는 지식인 허목의 대응이다. 허목 스스로 언급한 바와 같이, 『춘추』 속에 들어있는 춘추대의는 수천 가지나 된다. 많은 춘추대의 속에서 허목이 위와 같이 세 가지만을 언급하고 있는 데에는 나름의 의지가 숨겨져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의 의지는, 「춘추설」 속에서 왕권 강화를 통하여, 인과 의를 바탕으로 하는 안정적인 정치체제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 혼란한 시대상을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참고문헌〉

『公羊傳』
 『孔子家語』
 『近思錄集解』
 『論語』
 『孟子』
 『孟子集註』
 『史記』
 『二程文集』
 『左氏傳』
 『春秋』
 許穆, 『記言』

권정안, 「춘추의 근본이념과 비판정신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 김동민, 「『춘추』에 보이는 존왕 의식의 변천 양상」, 『유교사상문화연구』 75, 한국유교학회, 2019.
- 안춘분, 「공자의 『춘추』 대의사상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이동린, 「17세기 허목의 고학과 춘추재이론」,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이준호 · 이상임, 「조선시대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 발생과 공옥(空獄) 사상의 교정적 의미 고찰」, 『교정담론』 11: 3, 아시아교정포럼, 2017.
- 이영춘, 「기해예송과 미수 허목의 예론」, 『허미수의 학 · 예 · 사상 논고』, 미수연구회, 1998.
- 이육, 「허목의 재이관」, 『종교학연구』 14, 서울대학교종교학연구회, 1995.
- 정경주, 「미수 허목의 「경설」에 나타난 육경학의 학문 관점」, 『동양한문학연구』 14, 동양한문학회, 2001.
- 조민환, 「허목의 경학사상」, 『한중철학』 1, 한중철학회, 1995.
- 곽신환, 『조선조 유학자의 지향과 갈등』, 철학과현실사, 2005.
- 김동민, 『춘추논쟁』, 글항아리, 2014.

* 이 논문은 2021년 2월 26일에 투고되어,
2021년 3월 15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1년 4월 5일까지 심사하고,
2021년 4월 8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Abstract

A Study on Misu Heo Mok's 「Chunchuseol」

Suk, Seungjing*

This study is to find and organize the materials that Heo Mok referred to while writing 「Chunchuseol(春秋說, A Commentary on the Spring and Autumn Annals)」 and to examine what is 'the Great righteousness of Chunchu(春秋大義)' he says.

Heo Mok wrote 「Gyeongseol(經說, A Commentary on the Scriptures of Confucianism)」 by abbreviating old writings he had read for more than 50 years. And he presented it to King Sukjong(肅宗). The meaning of his present of that book contained the expectation that the young king will emulate the teachings of the saints in the old writings and carry out great politics.

In 「Chunchuseol」, one of the 「Gyeongseol」, his thoughts on 『Chunchu(春秋)』 are completely contained. First, he mentions the fact that Confucius conveys the teachings of the old saints to posterity through 『Chunchu』. And, he explains 『Chunchu』 is a sacred discourse to cultivate the benevolence and righteousness, and expose the principles of humanity. He is also says that in an era when the principles of royal politics(王道) disappears and 'the poetry' could not play a role, 『Chunchu』 can be played the role of the scriptures of Confucianism. Continually, he proposes 'the Great righteousness of Chunchu' in three categories: the consciousness of respect for the King(尊君意識), the value of the benevolence and righteousness(仁義), and the idea of Great unification(大一統) reflecting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Joseon. Then, in accordance with the teachings of 『Chunchu』, he argues that the people should cultivate the benevolence and righteousness, formulate the principles of humanity, implement the principles of heaven and stabilize the principles of the earth.

Through the process of finding the various old writings and checking the context that Heo Mok referred to while writing 「Chunchuseol」, I was able to find a glimpse of what kind of situational awareness he had and what kind of responses to the situation at that time he did. In particular, through the expressions that differ slightly from those of the old writings he referred, I was able to confirm that he suggested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from the Chinese-centered Great

* Ph.D, Candidate, Sungkyunkwan University

unification ideas of the Spring and Autumn Period to the Great unification ideas of reflecting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Joseon.

The challenge of Joseon in the 17th century was to overcome the impoverished people's livelihood due to severe war, constant political turmoil, and frequent natural disasters. What was confirmed through this study is the countermeasures of Heo Mok, a responsible intellectual of that period who has to overcome such temporal and spatial challenges. It was the effort to establish a stable political system based on the benevolence and righteousness through the strengthening of the royal authority and ultimately solve the chaotic times situation.

[Keywords] Chunchuseol(春秋說, A Commentary on the Spring and Autumn Annals), the Great righteousness of Chunchu(春秋大義), the consciousness of respect for the King(尊君意識), the opinion on values of the benevolence and righteousness(仁義), the idea of Great unification(大一統)